길잡이글(예일판 편집자 존 E. 스미스 서문, 정성욱 역)

길잡이글 · 역사적 배경

『신앙감정론』 예일판 편집자 존 E. 스미스의 서문(길잡이글) 중 '1. 역사적 배경', 부흥과개혁사 2005, 정성욱 역, 인쇄 18~25쪽

🧭 흐름 한눈에

스미스는 에드워즈의 평생 질문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였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질문이 생겨난 현장은 노샘프턴에서 시작해 1740년대 대각성으로 절정에 이른 부흥의 물결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 부흥 한가운데서 목회하며 세 권의 책을 썼습니다. 『신실한 이야기』(1737)는 '새 감각'을,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1741)은 '표지'와 '소극적·적극적 표지'의 구별을, 『부흥론』(1742)은 '우연적 원인'과 '본질적 원인'의 구별을 내놓았습니다. 『신앙감정론』은 이 세 책의 생각을 모아 더 정교하게 다듬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령의 열매가 곧 참된 신앙감정이라는 점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참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을 다룹니다.

※ 이 글은 편집자 서문이어서 성경 장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성경의 근거' 표의 구절은 본문이 쓰는 성경 표현(가라지,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등)이 가리키는 구절을 대본 작가를 위해 찾아 붙인 것입니다. 에드워즈나 스미스의 인용으로 소개하면 안 됩니다.

🪪 표지 카드

(표지 장 아님)

📜 절별 정리

에드워즈의 전기를 쓴 새뮤얼 홉킨스는 “어둠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홉킨스는 이 문제에 에드워즈만큼 애쓴 사람도, 그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미스는 이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에게 이 문제는 곁가지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에드워즈의 사상 전체를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읽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신앙감정론』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1. 홉킨스: 참·거짓 신앙 구별은 모두에게 중요
2. 이 일에 에드워즈만큼 애쓰고 성공한 이 없음
3. 스미스도 이 평가가 옳다고 봄
4. 에드워즈 사상 전체 = “참된 믿음이란?”의 답

> **(서문에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홉킨스의 평가와 스미스의 판단만 다룬다

> **요한일서 4:1**
> 관련 구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말씀으로, 분별이라는 주제와 닿는다
>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 2. 부흥의 물결 — 스토다드에서 대각성까지

에드워즈는 부흥운동이 휩쓸던 시대에 글을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운동을 '대각성'(Great Awakening)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은 한 번에 터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각성이 이어졌습니다. 시작은 1679~1718년 노샘프턴에서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가 겪은 다섯 번의 '영혼 추수'였습니다. 1734~1735년에 뜨거운 운동으로 번졌고, 1740년대 대각성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에드워즈의 질문은 책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실제 부흥을 겪으며 나온 질문입니다.

2. 각성은 크고 작은 여러 번의 물결이었음
3. 1679~1718 스토다드의 다섯 번 '영혼 추수'
4. 1734~35년에 번지고 1740년대에 절정

> **(서문에 직접 인용 없음)**
> 역사 서술 단락

> **요한복음 4:35**
> 관련 구절.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은 '영혼 추수'라는 표현의 성경적 배경이다
>
>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 3. 부흥 직전의 모습과 노샘프턴

역사가 벤저민 트럼불에 따르면 1734년 이전의 코네티컷 골짜기에서는 믿음에 관한 가르침이 무시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생명력 없는 도덕주의'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즈도 1729년 스토다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회의 신앙 상태가 안타깝다고 탄식했습니다. 트럼불은 이런 전반적 타락과 무사안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 자비로 사람들을 죄의 자각과 회심으로 이끄셨다고 씁니다. 그 일은 뉴잉글랜드에서 전례가 없는 규모였고, 에드워즈의 영향 아래 노샘프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트럼불은 말합니다. 스미스는 에드워즈를 18세기 부흥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물로 봅니다. 그는 1741년 엔필드에서 한 유명한 설교 같은 '가슴을 울리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만 스미스는 이 엔필드 설교가 에드워즈 사상을 대표한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드워즈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체험을 해석해 주었고, '양심 문제'(구체적 신앙 결정)를 상담했으며, 해외 목회자들과 편지로 종교 체험에 관해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1. 부흥 전에는 '생명력 없는 도덕주의'가 신앙을 대체
2. 1729년 에드워즈도 신앙 상태를 탄식
3. 트럼불: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로 시작된 회심의 역사

5. 엔필드 설교 = 에드워즈 사상의 대표가 아님

6. 그는 체험을 해석해 주는 목회자였음

> **(서문에 직접 인용 없음)**
> 트럼불의 역사 서술

> **디모데후서 3:5**
> 관련 구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은 '생명력 없는 도덕주의'와 닿는다
>
>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 4. 세 권의 부흥 저작과 『신실한 이야기』 — '새 감각'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 외에 세 권의 책으로 뉴잉글랜드의 성령 역사를 해석하고 변호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실한 이야기』(1737),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1741), 『최근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신앙부흥에 관한 어떤 생각』(1742, 이하 『부흥론』)입니다. 세 책 모두 부흥을 해설하고, 참된 경건과 거짓된 경건을 구별하려 하며, 부흥을 성령의 진정한 역사로 변호합니다. 그중 『이야기』는 실제 체험을 생생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에드워즈가 '체험적 신앙'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었고, 생각을 실제 사실에 얼마나 꼼꼼히 연결했는지 보여 줍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신앙감정론』의 핵심을 미리 보여 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 진리에 대한 '새 감각' 혹은 '새로운 확신'을 얻습니다. 전에는 복음을 듣고 맞다고 인정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진리임을 '보게' 됩니다. 이 '봄', 곧 직접 알아봄의 체험이 '마음의 감각'이라는 에드워즈 사상의 원천이 됩니다. 이 새 감각을 해석하는 '확신 교리'가 『신앙감정론』의 주요 사상입니다. 스미스는 이런 체험에 대한 관심이 초기 저작에만 있다고 보는 시각에도 반대합니다. 후기 저작에도 같은 관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1. 부흥 저작 셋: 『이야기』, 『분별 방법』, 『부흥론』

2. 셋 다 참·거짓 구별과 부흥 변호를 시도

4. 전엔 '인정', 이제는 진리를 '봄'

5. '마음의 감각'과 확신 교리가 『감정론』의 핵심

> **(서문에 직접 인용 없음)**
> 저작 소개 단락

> **고린도후서 4:6**
> 관련 구절. 마음에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진리를 '보는' 새 감각과 닿는다
>
>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 **고린도전서 2:14**
> 관련 구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말씀은 머리의 인정과 영적인 '봄'의 차이와 닿는다
>
>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5.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 일반 사역과 구원 사역, 그리고 '표지'

스미스는 『분별 방법』을 『신앙감정론』의 훌륭한 입문서로 봅니다. 성령의 열매를 평가하는 에드워즈의 정교함을 미리 맛보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 자신도 『신앙감정론』 서문에서 두 책의 차이를 밝힙니다. 『분별 방법』은 성령의 '일반 사역'과 '구원 사역'을 함께 다루고, 『신앙감정론』은 '은혜로운 사역', 곧 구원하는 사역만 다룹니다. 칼빈주의 전통은 원래 두 사역을 구분해 왔습니다. 일반 사역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고, 구원 사역은 사람을 실제로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감정론』은 은혜로운 감정만을 집중해서 파고드는, 부흥 저작들보다 더 정교한 연구서입니다. 또 『분별 방법』은 신앙을 평가하는 '표지'라는 생각을 처음 소개합니다. 모조품이 넘치고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으니, 참과 거짓을 가를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분별 방법』: 일반 사역과 구원 사역을 함께 다룸
3. 『감정론』: 구원하는 '은혜로운' 사역만 다룸
4. 모조품과 가라지 때문에 '표지'가 필요

> **마태복음 13:24-30**
> '알곡 가운데 가라지'라는 표현의 출처. 교회 안에서 참과 거짓이 섞여 자란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
>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

> **요한일서 4:1**
> 관련 구절. 영들을 시험해 분별하라는 요구는 '표지'가 필요한 이유와 닿는다
>
>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 6. 소극적 표지와 적극적 표지

『분별 방법』에는 『신앙감정론』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는 구별이 이미 나옵니다. 바로 소극적 표지와 적극적 표지의 구별입니다. 소극적 표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에드워즈가 드는 예는 이렇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신앙에 대해 시끄럽게 떠벌리는 것, 지나친 상상, 회심했다는 사람들의 갖가지 나쁜 행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믿음의 증거도 아니고 거짓된 믿음의 증거도 아닙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으로 두 방향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한편으로는 적극적 표지를 세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박합니다. 그들은 정당한 기준을 갖지 못한 채 비본질적인 것을 증거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1. 소극적 표지 =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는 것
2. 예: 몸의 특이 현상, 떠벌림, 과한 상상
3. 회심자의 나쁜 행실도 부흥 전체를 판정 못 함
4. 반대자는 겉모습으로 마음의 신앙을 부정
5. 적극적 표지는 따로 세워야 함

> **(서문에 직접 인용 없음)**
> 『분별 방법』 내용 소개

> **마태복음 13:24-30**
> 관련 구절.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밭 전체가 가짜인 것은 아니다. 나쁜 행실을 이유로 부흥 전체를 부정하는 논리를 반박하는 데 쓸 수 있다
>
>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

> **사무엘상 16:7**
> 관련 구절.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겉모습은 기준이 아니다'라는 원리와 닿는다
>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 7. 『부흥론』 — 우연적 원인과 본질적 원인

에드워즈가 소극적 표지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신앙감정론』의 한 부(2부) 전체를 이 문제에 바쳤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흥 관련 초기 저작의 마지막인 『부흥론』(1742)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다뤘다는 점입니다. 『부흥론』은 어떤 사건에 딸려 나오는 '우연적 원인'과 그 사건의 '본질적·궁극적 원인'을 구별합니다. 우연적 원인만으로는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구별을 통해 부흥 안에 타락한 요소가 있음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열광주의, 미신, 절제되지 않은 열심은 부흥 때마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부흥 배후의 궁극적 원인에 대해 아무 실마리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직 본질적으로 맞는 원인만이 참된 증거, 곧 적극적 증거가 됩니다. 부흥의 타락한 요소를 들어 대각성 전체를 부정한 사람들은 기준 자체를 잘못 세운 것입니다.

1. 『감정론』 2부 전체가 소극적 표지 문제
2. 우연적 원인 ≠ 본질적 원인
3. 열광주의·미신·무절제한 열심은 인정함
4. 그러나 그것으로 부흥을 판정할 수 없음
5. 반대자들의 오류 = 잘못된 기준

> **(서문에 직접 인용 없음)**
> 『부흥론』 내용 소개

> **로마서 10:2**
> 관련 구절.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열심'은 '절제되지 않은 열심'이 부흥에 섞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연적 원인들은 기준으로서 불충분하다.”

📜 8. 성령의 열매 = 참된 신앙감정 — 그래서 1부가 먼저다

『부흥론』이 남긴 마지막 요점은 성령의 열매와 감정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스미스는 이것을 큰 진보로 보고, 『신앙감정론』 앞부분이 이것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에드워즈는 부흥을 전체로 살펴보며 그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통일성은 성경이 그리는 참된 믿음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신앙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마음속 하나님 사랑이 그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신약에 기록된 바울의 체험에서 이 열매들을 끌어내어, 성령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확실한 표지로 규정했습니다. 결정적 진보는 에드워즈가 성령의 열매를 참된 감정과 같은 것으로 본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곧 그런 참된 감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신앙감정론』이 판단 기준(2·3부)에 앞서, 1부에서 “성령의 열매가 참된 신앙감정이며, 성령이 계시면 감정도 있어야 한다”는 점부터 세우는 이유입니다. 스미스는 이 순서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 부흥 속 통일성 = 성경이 그리는 참된 믿음
2. 평강·기쁨·영광의 빛·하나님 사랑
3. 이 열매들은 바울의 체험에서 끌어냄
4. 성령의 열매 = 참된 신앙감정
5. 그래서 1부(감정의 자리)가 2·3부보다 먼저

> **갈라디아서 5:22-23**
> 관련 구절. 사랑·희락·화평 등 '성령의 열매' 목록. 열매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논리의 배경이다
>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로마서 5:5

관련 구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는 말씀은 '마음속 하나님 사랑'이라는 열매와 닿는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빌립보서 4:7

관련 구절.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열매와 닿는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소극적인 표지들은 문제의 핵심과는 무관하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생각과 느낌이 따로 놀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마음의 기울어짐입니다. 한순간 끓어오르는 기분과는 다릅니다.

대각성(Great Awakening)

1740년대 미국에서 절정에 이른 대규모 부흥운동입니다.

생명력 없는 도덕주의

새 감각·마음의 감각
복음을 '맞다'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진리와 아름다움을 직접 '보게' 되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각입니다.

확신(conviction)
여기서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새 감각으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일반 사역과 구원 사역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일반 사역이고, 사람을 실제로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구원 사역입니다.

표지(sign)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가르는 판별 기준입니다.

소극적 표지 / 적극적 표지
소극적 표지는 참·거짓 어느 쪽의 증거도 못 되는 현상이고, 적극적 표지는 참된 은혜의 증거가 되는 특징입니다.

우연적 원인 / 본질적 원인
사건에 딸려 나오는 부수적 요소가 우연적 원인이고, 그 사건을 실제로 일으킨 근본 원인이 본질적 원인입니다.

열광주의
자기 느낌이나 상상을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로 착각하며 지나치게 들뜨는 신앙 태도입니다.

⚖️ 거짓과 참 ⌄

💬 청년의 삶으로 ⌄

✅ 이 장의 결론 ⌃

- 에드워즈의 평생 질문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였고, 이 질문은 실제 부흥의 현장에서 생겨났습니다.
- 『신실한 이야기』는 '새 감각'을, 『분별 방법』은 '표지'와 소극·적극의 구별을, 『부흥론』은 '우연적 원인과 본질적 원인'의 구별을 『신앙감정론』에 넘겨주었습니다.
-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참·거짓 어느 쪽도 판정하지 못합니다. 판정은 오직 성령께서 일으키신 본질적 열매로 합니다.
- 에드워즈는 성령의 열매를 참된 감정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감정론』은 “참된 신앙에는 감정이 있다”를 먼저 세우고 나서 분별의 기준을 다룹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편 · 수련회의 뜨거움은 어디로 갔을까 · 에드워즈와 신앙감정론 지도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